



불서읽기 캠페인



천지는 꿈꾸는 집이어나: 우리 모두 꿈속의 사람을 깨달으라
월암당 정대 스님 지음 | 초담 펴냄
1만5000원



정대 스님(1937~2003·사진)의 열반 5주기를 맞아 조계종 월암문도회가 정대 스님의 삶과 선사, 선사들의 일화를 담은 <천지는 꿈꾸는 집이어나: 우리 모두 꿈속의 사람을 깨달으라>를 발간했다.

<천지는 꿈꾸는 집이어나>는 정대 스님의 법문을 깨달을·수행·회향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엮고, 스님을 기억하는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스님과의 인연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서술해 살아생전 스님의 생생한 행장과 진면목을 만날 수 있다.

"사람들은 자기가 처해있는 현실이 어렵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정대 스님의 가슴적지는 글이 겨울의 길목을 따뜻하게 한다.

이어나 기자

법구경-담마파다 전제성 역주 | 한국법아리성전협회 펴냄 | 5만원

시공을 뛰어넘는 가르침의 조각들

<법구경>은 부처님이 전 생애에 걸쳐 설법한 내용인 팔만대장경 가운데 핵심적인 가르침을 423개의 시로 구성한 경전이다.



당나라 대사인 백거이(白居易)가 도립선사(道林禪師)를 찾아가 불교의 대의(大義)를 묻자 선사는 <법구경>의 시 '제악막작(諸惡莫作) 중선봉행(衆善奉行) 자정기(自淨其意) 시제 불교(是謂佛敎)'라 답한다.

빨리어로 <담마파다(Dhammapada)>, '가르침의 조각들' 또는 '진리의 길',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법구경>은 수행자는 물론, 재가자와 동·서양인들에게도

예나 지금이나 세계의 고전으로 꼽히는 경전이다. 100여 종의 영역과 10여 종의 독역, 10여 종의 일역, 10여 종의 한글역과 수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었다는 점을 보면 <법구경>이 올바른 삶의 방향과 동시에 삼법인·사성제의 원형적 가르침과 불교윤리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탁월한 경전임을 증명한다.

이러한 대경전은 법정 스님(조계종 원로, 서경수 교수(동국대), 거해 스님 등의 번역이 널리 알려져 있으나, 일본의 나가무라 하지메 일역의 중역, 또는 라다크리슈나 영역의 중역인데다 주석이 없어, 본래의 경전의 진의가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법구경-담마파다>는 단순한 빠알리 원전번역이 아니라, 스리랑카사원에서 전승되어 온 문헌적 주해를 보충해 2023 개의 주석을 달았다.

서양에 가장 널리 알려진 1870년에 이루어진 막스 뮐러의 영역본을 읽고, 가운데 번역상 문제가 있는 몇몇 시를 전제성 박사(한국법아리성전협회 대표)가 교정해 스님들이나 포교사들의 해외포교나 국내 청소년의 교육용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빠알리 본과 대략 일치하는 한역 <법구경> 원문을 읽고 그 한역 대장경의 출처를 밝혀 놓아서 전통교학과 연결고리를 마련했다.

이어나 기자 bohyung@buddhapia.com



공적보호보험 논의
사토미켄지 지음/홍인 스님 옮김
나눔의 집 펴냄|7800원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선진국이 경험한 사회적 변화를 짧은 시간에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어 전국에서 노인장기요양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흥인 스님은 중앙승가대학을 나와 일본불교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여 박사과정까지 수료했다.

임연태 기자



현대한국불교 청담 대성사 재인식
선목 혜자 스님 지음 | 문예마당 펴냄
2만5000원

"이제 조각하는 석양에 나뭇잎을 벗 삼아 대화를 나누다. 채 피지 못한 한송이 연꽃을 어루만진다.

입적 몇 시간 전에도 불교정화운동에 대한 신념을 잃지 않았던 청담 스님을 재조명하는 책이 발간됐다.

혜자 스님은 청담 스님을 회상하며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청담 스님의 발원을 다시한번 마음에 새기고, 한국불교를 되돌아보도록 현재 불교계 상황을 극복하자'고 말한다.

이외에도 도심권의 불교세 미약, 사회 지식층 불자의 감소 등 불교와 관련된 사회현상에 대한 '현대 한국불교 재인식의 혁신론에 대한 제안'을 담고 있다.

이어나 기자



선문답 강화(宏智拈古)
김호규 지음 | 석란 펴냄 | 1만3000원

불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수행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특히 선(禪)을 붓다가 자신의 깨침을 위한 방식으로 채택한 이래 오늘에 이르도록 더욱더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 책의 1부에서는 선어록과 선문답의 정의를 제시하고 그 특징을 요약해 서술했다.

저자 김호규 교수(동국대)는 저서를 통해 "자력수행을 통해 깨침을 추구한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불교적이고 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선문답은 이를 지향하는 목조건을 온전하게 설파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설명한다.

이어나 기자



노보살 일진행의 행복한 고행
일진행 지음 | 운주사 펴냄|9800원

"어머니, 당신은 한국불교의 오늘입니다." 올해 나이 73세 일진행 보살의 일상과 수행을 아우르는 30년간 일기를 고백한다.

"부처님을 닮아가고 싶었던 일념 하나 때문에 설친 잠, 육신의 조복으로 흘린 땀, 뼈를 깎는 인내로 이겨온 세월이 지나지 않았다."

가연숙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Rank), 도서명 (Book Title), 저자 (Author), 출판사 (Publisher). Lists 10 books including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and '행복한 사람들'.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인터넷 불교서점 붓다북 www.buddhabook.co.kr 02)953-7181

Large advertisement for '조계종 77조 전강 대선사님 법어집' (77th Jojong General Assembly Daejeon Sunim's Dharma Collection). Includes a portrait of a sunim, a book cover, and promotional text about the collection's significance and availability.